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박종갑**

- I. 들어가기
- II. 규범어의 이질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 1. 규범어의 제정 과정
 - 2. 남한에서의 변천 과정
 - 3. 북한에서의 변천 과정
 - 4. 이질화의 실상과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 III.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 IV. 의사소통 장애 요인의 해소 방안
 - 1. 규범어의 경우
 - 2. 국어사용환경의 경우
- V. 마무리

【요 약】

본고는 국토 통일 이후 남쪽 주민과 북쪽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2007년 11월 3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개최된 2007학년도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정 토론자로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경북대학교 백두현 교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영남대학교 교수

정에서 주요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될 언어 관련 이질성들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말의 이질화 정도와 그 통합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등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와 통합 방안에 대해 한정하여 고찰하고 있다. 본고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규범어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말의 이질화를, 첫째,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와, 둘째, 언어사용환경 사이의 이질화 등 두 가지 영역으로 확대하고, 각 영역의 그러한 이질화가 통일 시대의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장애 요소가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보면서, 그러한 장애의 해소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와 관련하여, 여러 앞선 연구들에서는, 표준어와 문화어 사이의 이질화는 어휘적 문제이며, 상호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어려운 경우는 복수 규범어로 지정하여 함께 사용하다가, 추후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자연적으로 단일화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한 단일화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표준어 어형으로 단일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통일 후의 단일한 규범어가 표준어와 문화어를 아우르고 동시에 남북의 각 지역 방언들이 대거 편입된 공통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큰 그림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여 인위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언어사용환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토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한의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라고 보았다. 국

어사용환경의 특징을 이루는 한 축은 우리 국민들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문제이다. 여성 잡지의 경우, 그 이름의 70% 가까이가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쪽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무분별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능하면 우리말을 이용 하는 것이 더 품위 있는 언어생활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무절제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I. 들어가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말의 이질화 정도와 그 통합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¹⁾ 그런데 이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남북한의 규범어²⁾ 사이의 이질화

1) 북한말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의 연구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말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자료가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북한말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국어학자가 북한말 관련 논문을 썼다고 할 정도로 북한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졌다(국립국어연구원, 2001: 머리말). 본고에서는 남북한 말의 이질화와 그 통합 방안에 대한 논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말 관련 자세한 논저목록은 국립국어연구원(2001)에 해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2) ‘규범어’는 편의상 남한의 표준어나 북한의 문화어 등을 다 가리킬 수 있는 용어로 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측은 문화어란 용어를 고집하고 남한 측은 표준어란 용어를 고집하여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때도 규범어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된 규범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온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표면화하거나 은연 중 드러내고 있다.

첫째, 남한의 표준어는 분단 이전의 표준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의 문화어는 평양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문화어가 탄생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과감한 변화를 꾀함으로써 남북한 말의 이질화가 시작되고 심화되었다.

셋째, 복수 규범어³⁾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언어 통합을 추진하고, 추후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도록 유도한다.

위의 내용은 은연 중 남한 중심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하여 이는, ①문화어가 평양방언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기술은 사실과 부합하는가? ②그러한 문화어가 탄생함으로써 남북한 말의 이질화가 시작되고 또 심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온당한가? ③일단 복수 규범어로 양쪽 말을 모두 수용하고 추후 언중의 선호도에 의해 단일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한가? ④남북한의 언어 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뿐인가? 등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하며, 특히 통일 시대의 우리가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앞선 연구들에서는 ‘복수 표준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표준어라고 하면 문화어와 대비하여 현재의 남한에서 쓰는 표준어를 떠올리게 되므로, 통일 이후의 시대를 가정하여 복수 규범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언어적 과제를 그러한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질화는 언어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객관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남북한 주민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는 남북한의 주민들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겪게 될 장애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의사소통의 원활성이란 관점을 취하여야만, 남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북한의 말이 얼마나 이질적인가를 따지는 방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북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볼 때 남한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까와 같은 시각도 아울러 가질 수 있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 통일 이후 남쪽 주민과 북쪽 주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요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될 언어 관련 이질성들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규범어의 이질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을 만한 언어적 차이는 크게, ①전통적 지역 방언의 차이, ②규범어의 차이(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 ③언어사용환경의 차이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각 지역 방언은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 논의할 이질화는 ‘규범어의 이질화’, ‘언어사용환경의 이질화’ 등이 된다.

1. 규범어의 제정 과정

국가마다 국민들의 의사소통과정의 불편을 덜고 사회 통합을 기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함께 쓸 공용어를 둔다. 이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인데, 남한에서의 표준어와 북한에서의 문화어가 그 예이다. 남북한의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분단 전에는 하나의 동일한 규범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분단 이후 차별화된 가치를 지향하는 각각의 규범어를 가지게 되면서,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차 달라졌다는 뜻이다.

남북은 분단 이전에는 당연히 공통의 규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 또는 ‘표준’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1912년 4월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이다.⁴⁾ 여기서는 철자법의 한 기준으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지역성’의 조건만 명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인식은 그 이후, 1921년 3월의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에서 제시된, ‘용어는 현대의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과 같은 언급과, 1930년 2월의 「언문철자법」에서 제시된 유사한 언급에서 보듯이, ‘지역성’ 외에 ‘시간성’이 명시되는 등으로 조금씩 발전·계승되어갔다. 그리하여 1933년 10월 29일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서는 ①지역성(서울) ②시간성(현재) ③사회 계층성(중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세화된 명문 규정이 탄생하였다.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총론, 二)⁵⁾

조선어학회는 1935년 1월부터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상기의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사정하는 작

4) “京城語를 標準으로 함.” ... “正格인 現代 京城語를 標準으로 하고, 可及的 從來 慣用의 用法을 取하여 發音대로의 書法을 取함.”(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3), 제3부 제8책에서 인용).

5)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3), 제3부 제9책에서 인용.

업을 하였고, 그 결과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란 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1936. 10. 28). 조선어학회의 이러한 노력은, 1938년에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기초하여 만든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이 등장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매체와 각종 출판물에서 「한글마춤법통일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등 문화계의 지원에 힘입어, 국민들의 언어문자 생활의 기준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 남한에서의 변천 과정⁶⁾

남한은, 정부 주도의 언어정책 시행도 일찍부터 있었지만, 주요 언어 정책적 사업을 한글학회 등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추진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단 이전부터의 전통대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전편찬, 표준어사정 등과 같은 어문사업을 추진하였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 이뤄진 표준어 관련 큰 사업으로는 『조선말 큰사전』의 간행을 들 수 있다. 이 사전은 1933년의 「한글마춤법통일안」과 1936년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947년 10월에 제1권이 간행되고, 1957년 10월에 제6권이 간행되어 완간되었다. 164,125개의 낱말을 수록하여 종합 표준어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이 사전이 간행됨으로써, 이 사전에서의 표준어 처리 기준에 따라, 이후에 여러 종류의 사전이 나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한글학회는 『중사전』(1958), 『새한글사전』(1965) 등을 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표준어를 수정해 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준어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언어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다.

한글학회 중심의 민간단체가 주관한 각종 언어 정책적 사업들은

6)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홍종선(2002)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본고의 논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정부 주도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 정부는 한글학회에 6개의 국어연구단체(국어국문학회, 국어학회,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회, 한국어문학회, 한글전용국민실천회)와 연합하여 ‘국어조사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표준어 재사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77년 16,500개의 표준어를 재사정하여 문교부에 보고하였고, 1979년 문교부 안으로 발표되었다. 그 뒤 이 안은 학술원 중심의 재검토 작업을 거치고, 국어연구소로 이관되었으며, 국어연구소의 ‘표준어 심의 위원회’에서는 학술원 안을 검토하고 새로이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여 첨부하였다. 마침내 1988년 1월 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표준어 규정’을 공포하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안은 국어의 현실적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표준말, 현재’와 같은 용어를 ‘표준어, 현대’와 같은 용어로 바꾸고 사용주체를 ‘중류사회’에서 ‘교양인’으로 수정한 점도 눈에 띈다.

[표준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⁷⁾

광복 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 상황이 도래하자, 언어가 그 민족 특유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의식에서, 우리말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한자 문화권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온 부작용으로, 우리말에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일제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어가 대량으로 침투해 있는 사정을, ‘왜곡되고 오염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⁸⁾ 이른 바 ‘국어순화운동’이 그 대표적인

7)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1988년 공포).

8) 이러한 점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일이다.

남한은 해방 후에 문교부 주도로, ‘우리말 정화’에 대한 방침을 세운 다음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쓰이던 일본어를 찾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고(1946년), 『우리말 도로 찾기』를 펴내는 등(1948년), 주로 일본어 찌꺼기를 없애는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한자어나 기타 순화 대상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어휘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조오현 외, 2002: 144). 1970년대 이전까지의 정부 차원의 국어순화운동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이 문제 역시 한글학회 중심의 민간단체들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글학회는 분단 이후, 어려운 한자말, 일본말 찌꺼기, 서양 외국말, 잘못 쓰는 말, 그 밖의 낱은 말 등을, 토박이말 찾아 쓰기, 새로운 우리말로 지어 쓰기, 한자말이라도 우리식 한자말로 쓰기, 잘못 쓰는 말 바로잡아 쓰기, 그 밖의 낱은 말 고쳐 쓰기 등의 방식으로 다듬어 쓰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물로서, 1967년에는 1,600개 정도의 ‘쉬운말’을 수록한 『쉬운말 사전』을, 1984년에는 32,000여개 정도를 수록한 『고치고 더한 쉬운말 사전』을, 그리고 1999년에는 37,200여개 정도를 수록한 『깎고 더한 쉬운말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국어순화운동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문교부는 1976년부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77년부터 1982년까지, 14,159개의 낱말이 실린, 총 5권의 『국어순화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정부 차원의 국어순화운동은 1984년에 국어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문교부 산하의 학술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던 국어연구소는 1991년에 문화부 소속의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2년부터 총 22,655

개 항목이 수록된 『국어 순화 자료집』을 연차적으로 편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의 국립국어원에서는 외국어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모하기도 하고 언론들의 반응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⁹⁾

3. 북한에서의 변천 과정

북한은 분단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분단 이전부터 써 오던 표준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용어도 ‘표준어’ 그대로였다.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이 제시된 이후 그때까진 기존의 표준어의 일부를 조금씩 수정해 나갈 뿐이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자신들이 이룩한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 위대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서울말이 아닌 평양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어¹⁰⁾를 제정한다고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 내용에서 확인된다.

우리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을 본받아도 안 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¹¹⁾

9) 북한은 일찍부터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등 정부 기관 주도로 언어정책을 펼쳐왔는데, 새 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주민들의 반응을 점검하도록 했다. 언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북한이 한발 앞서갔다.

10) 북한에서 ‘문화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주석이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제2차 교시)에서이다(홍종선, 2002: 33-34).

11) 이른바 ‘1차 교시’의 내용인데, 1964년 1월 3일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것이 낫습니다.¹²⁾

문화어의 토대가 평양말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의 문화어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문화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 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우리의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언어 사상과 당의 올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 지향적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민족어의 본보기이다.¹³⁾

앞에서 본 표준어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적 인식은 ①지역성(서울) ②시간성(현대) ③사용 주체(교양인) 등인데, 문화어의 차별적 특징은 지역성과 사용 주체에 있다. 서울과 평양, 교양인과 노동

한 몇 가지 문제'란 제목으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에서 밝힌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18권에 실려 있는데, 본고에서는 조오현 외(2002: 247-54)에서 재인용했다.

12) 이른바 '2차교시'의 내용인데, 1966년 5월 14일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란 제목으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에서 밝힌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에 실려 있는데, 본고에서는 조오현 외(2002: 255-64)에서 재인용했다.

1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 실린, '문화어'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 등에서 대조된다. 문화어는 남한의 표준어와는 달리, 지역으로서는 평양을, 사용 주체로서는 노동 계급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문화어가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주장은 남한에서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통용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은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문화어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점은 문화어의 실상을 우리 남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평양의 말을 중심으로 노동 계급의 이상 및 생활 감정에 맞도록 규범화한 말.

문화어는, 그 내용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분단 이전의 표준어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문화어의 기저 방언은 서울 방언인 것이다.

문화어의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평양방언은 평안 방언 또는 서북 방언의 한 하위 방언이다. 전통적인 지역 방언학적 관점에서 보면, 서북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서북 방언의 음운·형태·통사적 제 특성은 중부 방언과 비교해 보면 참 독특한 면이 많다.¹⁴⁾ 그러나 북한의 문화어는, 일부의 어휘를 제외하고는, 서북 방언의 그러한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간단한 예로, 문체 서법과 대우법에 따른 종결 어미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자세한 것은 김영배(1992)를 보라.

서법 \ 대우	대하(對下)	대등(對等)	대상(對上)
서술형	책이다 한다 먹는다	책임메 함메 /하네 먹음메 /먹네	책임네다 함네다 /함무다 먹음네다 /먹음메다 /먹음무다
의문형	책이가? 먹네? 먹언? /먹언네? 먹간? /먹갓네?	책임마? 책이엇습마? 먹습마? /함마? 먹엇습마? /헛습마?	책임네까? 책이엇습네까? 먹습네까? /함네까? 먹엇습네까? /헛습네까?
명령형	하라 먹으라	하시 /하시다나 먹으시 /먹으시다나	하시우 /하시라요 잡으시우 /잡수시라요
청유형	하자꾸나 /하자무나 먹자꾸나 /먹자무나	하자 먹자	함세다 /함수다 먹음세다 /먹음수다

이상의 종결어미 목록¹⁵⁾은 전통적인 지역 방언학적 입장에서 본 평안방언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평안도 지역의 토박이 화자들이 쓰는 말의 특징이 된다. 평안도 방언도 각 하위 지역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는 평안도 지역 방언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양방언도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은 북한의 유명한 동요와 대중가요 중에서 하나씩 뽑아 일부분을 보인 것인데, 표기법의 문제만 제외하면, 우리의 표준어와

15) 김영배(1992: 345-46)에서 인용한 것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등 문법적 요소들엔 전통적인 평양방언의 흔적이 전혀 없고, 남한의 표준어와 완전히 같다. 단지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70년대 건전가요와 같은 것이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질감이 좀 느껴질 뿐, 문법적·어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쓰는 말 그대로이다.

<우리 아빠 제일 좋아>¹⁶⁾

내가 좋아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내가 좋아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아빠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아빠 뽀뽀가 제일 좋아.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 안고 좋아 웃어요. /절싸 안고 좋아 기쁨일세. /어허 놀리리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어를 확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낱말들을 제외하면, 문화어는 그대로 남한의 서울말(표준어)인 것을 보면, 서울말을 중심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해 온 오랜 관습과 인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모든 출판물이 표준어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문화어가 남한의 표준어로부터 떨어질 수 없게 한 구심력의 작용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다음의 김일성 교시에서 보듯이,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여,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통의 말과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16) 지난 2000년 5월 24일 평양의 학생 소년 예술단이 6박 7일 동안 서울을 방문하여 3차례 공연을 가졌는데, 이 공연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북한의 동요이다.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도 문화어가 표준어로부터 멀어질 수 없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김일성의 1차 교시 중, 김두봉의 독특한 문자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언어 문제를 민족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 습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령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조선 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 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주장대로 문자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 조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 편지를 써 보내 도 모르게 되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도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공통성을 없애며 결국은 민족을 갈라놓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성과 서울 등의 중부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곳이어서, 서울방언 또는 중부방언은 우리 민족 언어생활의 철저한 구심점이 되어 왔다. 더구나 1936년에 제정된 표준어로서의 서울말은 모든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통하여 언어통합의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 당국이 문화어 제정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당시의 평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서울말 또는 표준어가 ‘평양사람으로서의 그들이 당연히 써야 할 말’로 자리 잡고 있었다. 문화어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되는 평양말은 ‘표준어가 보급된 상태의 평양말’이며, 일상적 생활에서 사용하는 평양말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책으로 신문으로 접해오면서 사용해 왔거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평양말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어는 서울말 또는 표준어가 보급되어 쓰이고 있는 평양말에, 전통적 지역방언으로서의 북한 각 지역 방언들을 편입시켜 만든 것일 뿐이다(곽충구,

2001).

북한은 위대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서울말이 아닌 평양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어를 제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한 두 지역은 수천 년 역사의 대부분을 ‘한 민족 한 언어 한 국가’라는 강력한 결속력의 공동체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록 반세기가 넘는 이질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고 하나, 매우 견고한 언어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질화의 실상과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문화어와 표준어 사이의 이질화는 부분적인 어휘적 이질화일 뿐이다.¹⁷⁾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그동안 언어현실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체사상의 체계화에 따른 언어 정책의 변화 필요성 등에 따라 고유 어휘의 발굴, 방언 어휘 발굴, 고유 지명 활용 등을 통하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정치사상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평양말을 위주로 한 북부 방언 어휘를 대거 편입시키기 시작하였고, 이후 1980년까지 평안방언 함경방언 강원방언 가운데서 3,100 여 개를 문화어에 보충하였다.¹⁸⁾ 이후에도 계속 방언이나 새말들을 발굴하여 <조선말 대사전(1992)>에 추가하여 수록하고 있다(조오현 외, 2002: 165).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문명과 문물이 창조되고 도입됨에 따라 많

17) 두음법칙과 관련된 음운적인 차이는 쉽게 눈에 띄고 약간의 문체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18) 남한에서는 방언 낱말을 새 표준말로 살려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 세 개 있으며(명계(=우렁쟁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이)), 종전의 표준말을 없애고 방언 낱말을 표준말로 격상시킨 것이 일곱 개 있다(귀밀머리(*귓머리), 까뭉개다(*까무느다), 막상(*마기), 빈대떡(*빈자떡), 생인손(*생안손), 역겹다(*역스럽다), 코주부(*코보)).

은 수의 전문 용어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북한은 1966년에 이르러 김일성의 이른바 ‘제2차 교시’에서 하달된 지침¹⁹⁾에 따라 본격적인 ‘말다듬기’ 사업을 펼쳤다. 한자어와 외래어를 다듬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하면 고유어를 이용하고 새말이 필요하면 고유어로 새말을 만들어 쓰고자 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방언에서 좋은 말들을 찾아 썼다. 각 지명도 고유어로 된 것을 이용하도록 했다. 말다듬기의 큰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같은 뜻의 고유어와 외래어(한자어 포함)가 공존할 때는 고유어를 선택한다. 둘째, 외래어는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쓴다. 셋째, 새말은 고유의 어근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²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말들은 일반 주민들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고,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이를 책임지고 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0년대 초까지 <다듬은 말> 총 5만개를 총 6권의 책으로 차례대로 간행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유형으로 간략히 예시해 본다.

- 19)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꼭같을 때에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말을 쓰지 말도록 하며 사전에서도 그런 한자말을 빼야 합니다. ... 레를 들어 《하복》이란 말은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지만 《여름옷》이라고 쓸수 있는 것인만큼 사전에서 빼야 합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자말을 점차 줄일 수 없고 고유어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방언에서도 좋은것들을 찾아내어 써야 합니다. ... 우리가 방언들을 잘 조사해보면 지금도 쓸수 있는 좋은 우리 말이 있을것입니다.” “고유어를 적극 찾아 고장 이름도 우리 말로 부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말로 부르는것이 한자말로 부르는 것보다 더 고상합니다. 가령 《붉은바위》를 《적암》이라는 식으로 한자말로 바꾸어 놓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합니다. ...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들을 다 조사하여 될수록 한자말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20)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어휘의 정리·보급 과정에 강제성이 있고 그 깊이와 강도에 차이가 있는 점 외에는, 남한의 국어순화운동과 근본적인 방식이 같다. 자세한 것은 고영근(1989: 35-36), 조오현 외(2002: 143-63)을 보라.

첫째, 북부 지역 여러 방언의 낱말들을 문화어 속으로 편입한 경우이다. 그러한 낱말들과 남한의 표준어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¹⁾

내굴(평안, 함경 ↔ 내/연기), 내구럽다(함경 ↔ 냅다), 녀줄(평안, 황해 ↔ 년출), 망돌(함경, 황해 ↔ 맷돌), 아즈럽다(함경 ↔ 애처롭다), 아지(함경, 평안, 강원 ↔ 어린 가지), 인차(함경 ↔ 곧)

북한은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철저한 방언조사를 통하여 각 지역방언 낱말을 문화어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런 점을 보면, 방언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이 무척 다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방언학자 김병제가 『방언사전』의 서문에서 한, “문화어는 방언 가운데서 아름답고 인민적인 요소들을 모조리 받아들여 자체를 더욱 풍부히 하며, 방언은 오랫동안 자기 체계 안에서 간직하여 온 아름답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언어 요소들을 문화어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관계에 있다.”²²⁾라는 말은 방언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

21)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이들 낱말들에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a)‘내굴, 내, 연기’와 (b)‘내구럽다, 냅다’ 및 (c)‘망돌, 맷돌(맷돌)’은 각각 완전 동의어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의미가 동일하다는 표지도 붙어 있다. 뜻풀이 기술은 하나의 낱말에만 되어 있는데, (a)의 경우에는 표준어와 같은 어형인 ‘내’에 되어 있고, (b)와 (c)의 경우에는 북부지역 방언형인 ‘내구럽다’와 ‘망돌’에 되어 있다. ‘아즈럽다, 애처롭다’는 의미가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애처롭다’는 표준어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아즈럽다’는 ‘①보거나 듣기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거북하다. ②(소리가) 신경을 몹시 자극하게 듣기 싫고 날카롭다.’의 의미이다. 그런데 ‘녀줄, 년출’은 동의어 표지가 붙어 있으면서도 각각 뜻풀이가 되어 있다(녀줄: 제 힘으로 서지 못하고 땅바닥이나 다른 물체에 의거하여 길게 뻗어나가는 식물의 가는 줄기, 년출: 길게 뻗어나가면서 늘어지는 식물의 줄기). 뜻풀이의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진 않는다.

22) 곽충구(2001)에서 재인용한 것임.

단 문화어가 제정된 이후에는 언어생활에서 사투리를 없애고 문화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국어들을 고유한 우리말로 고친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서 남북한 사이에 서로 다른 말이 쓰이게 된 경우가 많다.

밥과, 곱밥(← 뽕또) ↔ 도시락, 해돌이, 해무늬(← 연륜) ↔ 나이테
꼭지모자 ↔ 베레모, 지난시간 ↔ 과거

셋째, 남한과 북한은 각 분야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낱말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쓰게 되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낱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남) 가전제품, 교도소, 교통체증, 부도, 예식장, 운전기사, 영안실, 파출부, 학점

(북) 가두녀성(街頭女性), 보양소(保養所), 점적대(點滴臺), 망원초(望遠哨), 적구(敵區), 타승(打勝), 합영법(合營法)

넷째,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경로의 차이도 어휘적 이질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은 각각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하여 외국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로부터 새로운 낱말을 수용하게 된 결과 서로 다른 형태의 낱말들이 쓰이게 되었다.

마이너스/미누스, 트랙터/뜨락또르, 그룹/그루빠, 매트리스/마다라스, 캠페인/깜빠니아

그런데 북한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 ‘말다듬기 사업’에 주목할 만한 방향 전환을 이루고 있다. 1986년에 간행된 ‘다듬은 말’에는

이전까지 다듬은 말 약 5만 개 중에서 절반을 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수록하고 있다.²³⁾ 그리고 이전의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어문화사전(1973)』 등에서는 다듬은 말만 올림말로 싣고, 버리는 한자말이나 외래어들은 아예 싣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1992)』은 다듬은 말의 본래말도 올림말로 수록한 후 다듬은 말로 안내해 주고 있고, 이전의 사전에 올리지 않았던 본래말들이 대부분 표제어로 올라 있다. 본래말이 많이 쓰이는 현실을 무시하기 힘들어 알 수 있다. 문화어 운동은 1986년을 기점으로 하여 국가가 주도하던 강제적 시행을 지양하고 언어 현실을 인정하면서 진행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규범어 문제로 한정하여 보면,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문화어와 표준어는 모두 분단 이전의,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북한의 말다듬기나 남한의 국어순화운동의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같고, 설사 그러한 결과로 새로 생긴 낱말이 생소하다 해도 양쪽의 주민들 대부분이 그 원래말도 아울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말다듬기와 국어순화운동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²⁴⁾ 특히, 전문용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고빈도 어휘의 경우 양쪽이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남북한 공히 빈도수 상위 1만 등 안에 드는 낱말들을 가려 뽑은 다음, 남

23)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했다가 다시 원래말로 돌아간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24) 국립국어연구원(2002)에서는 남한의 『국어 순화 자료집』(1992년 이후 국립국어원에서 연차적으로 발간한 것임)에 실려 있는 ‘순화한 용어’ 22,655개 항목과, 북한의 『다듬은 말』(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과 『조선말 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 실려 있는 ‘다듬은 말’ 38,307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총 705개 항목이 일치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비교해 본 결과,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범상의 차이는 컸지만, 어휘 의미 그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²⁵⁾ 새터민들과 대화해 보면, 운율적 요소나 억양 등의 차이를 서로 금방 느끼고, 또 좀 빠르게 말할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낱말 그 자체가 다른 경우는 많지 않고, 또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다. 이러한 점은 남한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만나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여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

III.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상당한 기간 동안 단절된 채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을 상대로 남한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것인데, 이런 조사를 통해 통일 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71.4%²⁶⁾ 정도가 ‘아주 많이 또는 간혹’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을²⁷⁾ 알 수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39-40).

25)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작업인데, 자세한 소개는 박충구(2001)을 보라.

26)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03: 39)에는 61.4%라고 되어 있는데, 합산 과정에서 실수인 것 같다.

27) 표의 하단부에 나와 있듯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아주 많다	간혹	비슷	많지 않다	전혀 없다	무응답	합계
어렵다고 느낄 때	9	16	3	6	0	1	35명
	25.7	45.7	8.6	17.1	0	2.9	100(%)
처음과 비교해 보면	0	2	2	16	14	1	35명
	0	5.7	5.7	45.7	40	2.9	100(%)

남한의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도의 ‘국어사용환경’을 조사하여 『국어사용환경 조사(2005)』라는 책으로 편찬한 바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국어사용환경이란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국어의 모습,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자연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라는 말과 대응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어이다.

『국어사용환경 조사(2005)』에서는 국내의 신문, 텔레비전 뉴스와 연예 프로그램, 대중가요, 잡지명, 영화제목, 회사명 등을 대상으로 삼아, 어휘 사용 실태, 문자 사용 실태, 발음 실태 등을 선별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어휘 사용 실태는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실태 등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다음은 비슷한 형태의 텔레비전 인기 연예 프로그램 3개에서 출연자들이 구사한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²⁸⁾

	KBS 상상플러스	MBC 놀러와	SBS 야심만만
외래어	2.48%	2.29%	1.88%
외국어	0.99%	0.63%	0.40%

28) 2005년 3월에서 5월까지의 총 12회분 분량이다.

‘KBS 상상플러스’와 ‘SBS 야심만만’에서 사용된 외국어 예는 다음과 같다.²⁹⁾

[KBS 상상플러스]

리플(28), 스케줄(9), 토크(9), 땡큐베리감사(8), 네비게이션(7), 나이스(6), 캡(5), 알람(5), 따봉(4), 부킹(4), 비트박스(4), 사마(4), 아이돌(4), 알람시계(4), 캡처(4), 오바하다(3), 코아(3), 리플방(3), 단스(3), 두샤(3), 머니(3), 스크립(3), 에이치디(HD), 엔딩(3), 예(yeah), 우와기(3)

[SBS 야심만만]

아나까나(14)³⁰⁾, 라이브(live, 5), 리필(refill, 5), 미니홈피(←mini homepage, 5), 포털사이트(portal site, 5) 사비(4B, 4), 필(feel, 4), 노(no, 3), 데인저러스하다(dangerous, 3), 레디(ready, 3), 맞고(맞-go, 3), 뮤직비디오(music vid데, 3), 사이드(side, 3), 오미트(omit, 3), 와즈업(What's up, 3), 훈키공(hunky-공, 3), 대시하다(dash, 3),

세 프로그램에서의 빈도의 차이는 고정 출연자들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서 외래어라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국어나 마찬가지로 것인데, 이 정도의 외래어, 외국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SBS 야심만만’에서의 출연자들이 한 대화의 일부분을 예시한 것인데, 특정한 외국어 사용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뚜렷한 표현상의 동기 없이 습관적으로 외국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괄호 속의 숫자는 사용된 횟수이다.

30) 둘리스(Dooleys)의 원티드(Wanted)라는 노래를 소재로 하여 익살스럽게 흥내내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유사한 음성(音相)을 적용하여 노랫말 내용을 구성한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외국어라고 하기 어렵다(『국어사용환경 조사(2005)』, p. 155 각주)

[SBS 야심만만]

박OO: 아니,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어요. 너무 **데인저러스**하세요.강OO: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박OO: 아, 순간적으로 이게 **럭셔리**한 테이트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김OO: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외모 안쪽에 쑥스러워하고 이런 매력이 굉장히 ...

다음은 대중가요의 제목, 가수명, 가사에서의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외래어 또는 외국어로 된 경우가 가수 이름에서는 50%가 넘고, 노래 이름에서는 20%가 훨씬 넘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비중이 외래어 비중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이채로운데, 이 점은 앞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와는 다르다.

	제목	가수명	가사
외래어	3.6%	4.5%	0.78%
외국어	19.0%	46.1%	3.52%

국어사용환경 조사에서 외래어 또는 외국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여성 잡지명 부문이다. 다음은 2005년 현재 한국잡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5개 주제 총 379종의 잡지를 대상으로, 이름이 외래어 또는 외국어로 된 경우를 조사한 것인데 그 비중이 엄청나다. 최고는 여성잡지인데, 외국어명이 70% 가까이 되고, 외래어로 된 경우까지 합하면 80%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잡지 중 80% 정도가 표기 자체를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하고 있는 점은 놀라울 정도이다.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잡지명은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취미 /레저	여성	스포츠	컴퓨터 /과학
외래어	13.0%	26.6%	8.9%	46.7%	25.3%
외국어	29.0%	34.5%	69.3%	30.5%	37.4%
로마자 ³¹⁾	34.5%	41.8%	79.0%	66.7%	54.8%

여기서도 외래어에 비해 외국어의 사용빈도가 대부분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인데, 여성 잡지의 잡지명 중 일부를 예시해 본다.

25's SURE, Aesthetic world, allure, an an, Babee, baby mom, BAZAAR, BEAUTY FASHION, BEAUTY LIFE, Best Baby, bi, BOBOS, CASA LIVING, CeCi, Cindy THE Perky, Cookand, COSMOPOLITAN, ecole, ELLE, ELLE girl, enfant, ESSEN, ESTETICA, FEATURE, FL, get excited Singles, Ha's Cooking, HairGRAPHY, HAUTE WEDDING

통일 후 북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문맹자처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통합을 통한 국민통합을 언급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미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이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남쪽 사람들이 쓰는 영어표현을 들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 크다(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43).³²⁾

31) 각 분야의 전체 잡지 중에 잡지명 표기가 로마자로 된 경우이다.

32) 새터민들은 또 영어 약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KAL, POSCO 등의 의미를 모르거나, 가수 HOT와 맥주집 간판에 나오는 HOF를 혼동하는 등이 그 예다. 다음은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통계 자료다(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45).

	발음과 억양의 차이	남쪽 사람의 영어 표현	존대말 사용법 차이	물건 이름 모름	생활 용어 모름	심리적 위축감	합계
어려움의 첫째 원인	9	14	0	2	3	2	35
	25.9	40	0	5.7	8.6	5.7	100(%)
어려움의 다른 원인들	15	19	11	12	20	16	107
	14.0	17.8	10.3	11.2	18.7	15.0	100(%)

채완(2004)에서는 2000년대 이후 생긴 아파트 520여개의 이름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로만 된 것이 304개이고, 영어와 다른 언어가 섞인 구성까지 합하면 4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 일부를 예시해 본다.³³⁾

(a) (태왕)메트로시티, (쌍용)스윗닷홈, 골든캐슬(전북 익산시),³⁴⁾

	매우	그런편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	전혀	무응답	합계
영어 약자에 의한 실수나 당혹감 경험	9	15	5	6	0	0	35(명)
	25.7	42.9	14.3	17.1	0	0	100(%)

- 33) 만일 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함경도에서 살고 있는 친척에게 이러한 아파트 이름이 포함된 주소를 전화로 불러 준다고 가정해 보면, 참으로 힘들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은 ‘00XX파크뷰’인데, 최근에 세 사람의 지인한테 전화로 주소를 불러주면서 혼이 난 적이 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중소 도시에서 자영업업을 하고 있는 50대의 죽마고우, 고졸학력으로 공무원을 하다가 퇴임하여 읍 단위 지역에서 살고 있는 60대의 인척, 대졸(국문과)학력에 평생 국어교사를 하다가 퇴임하여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70대 선배 등 세 분은 필자가 온 힘을 다해 또렷한 발음으로 불러주는 ‘파크뷰’를 쉽게 알아듣지 못했다. 특히 세 번째의 선배님은 그 뒤에 필자한테 두 번 연속으로 무엇을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첫 번째는 ‘파크부’로 써 보내고, 열흘 정도 뒤에는 ‘바크부’로 써 보내셨다.
- 34) 자연어 합성어 또는 구로 된 것임.

- (b) (대우)트럼프월드, (성우)헤스티아, (신일)엘리시움, (삼성)미켈란
쉐르빌, (현대)하이페리온, (서해)그랑블³⁵⁾
(c) (LG)자이(Xi=extra intelligent), 아이투빌(I2vill=intelligent 2000 villa),
(금호)리첸시아(Richensia=Rich+Intelligentsia)³⁶⁾, (두산)위브(We've)³⁷⁾

북한말에도 적지 않은 외래어가 쓰이고 있다. 말다듬기에서도 이미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나 우리말에 어감이 같은 말이 없을 때는 이른바 ‘눌러두고 쓸 어휘’에 포함시켜 계속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문화·사상적 특성으로 보아, 낮은 외국어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966년에 이뤄진 김일성의 이른바 ‘제2차 교시’에서 하달된 지침에도 새로운 외래어(외국어)는 제 때에 고쳐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남북 주민의 의사소통과정에서의 결정적 장애는 남한 사람들이 쓰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분단 이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면, 남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본 북한말의 이질화보다 북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본 남한말의 이질화가 더 심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³⁸⁾

35) 고유명사를 차용한 것임.

36) 자의적으로 조어한 것임.

37) '-ve'는 Live, Love, Have, Save, Solve 등의 끝음절과, ValuE의 처음과 끝 글자를 딴 것이라고 한다.

38) 새터민들은 남한에서 영어표현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조금 과장되게 인식하는 면도 있다고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45)에서는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영어표현 외에 발음과 억양의 차이 또는 심리적 위축감 등 다양한 이유로 언어사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를 대부분 과장되게 남쪽 사람들의 영어표현에서 찾고 있다는 조사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영어표현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심한 정신적 부담감과 긴장감, 그리고 이질감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IV. 의사소통 장애 요인의 해소 방안

1. 규범어의 경우

앞에서 북한의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 사이의 이질화는 주로 어휘 차원의 것임을 보았다. 그러한 어휘적 이질화가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전제를 두면, 통합된 하나의 규범어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문화어와 표준어에 서로 다른 어형이 존재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일화하는 방식도 있고, 둘 다 규범어로 인정하는 방식도 있다. 양측이 합의하여 쉽게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복수 규범어로 인정하는 방식이 우선 떠오른다.

남북한의 언어통합방식을 고찰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도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민간 차원에서 협의한다. 둘째,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정신에 따라 언제나 호혜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의 규범이 다른 것은 우열을 논하여 승부를 가리려 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승패가 없는 절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과 남북이 절충을 하지 못하거나 안 될 것은 사활을 걸고 싸우지 말고 남북의 제안을 복수로 수용하는 방안을 널리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수 규범어의 인정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일단 복수 규범어로 둘 다 인정해 놓고, 추후 언중들의 선호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³⁹⁾

남북의 서로 다른 어형을 복수 규범어 방식으로 수용하고 추후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단일화하는 방식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

39) 자세한 것은 김민수(2002), 홍종선(2002) 등을 참고하라.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첫째,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단일화한다면, 남북한 지역의 문화적 힘의 우열로 보건대, 거의 대부분이 표준어 어 어형으로 단일화될 것이고, 그것은 곧 서울방언 또는 표준어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을 아우르는 공통어적 성격의 규범어를 가정할 때, 그것이 특정 지역 방언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열을 따져 취사선택하는 사생결단의 경쟁을 내포하고 있다.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추후 단일화를 유도한다면, 북한 측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남한의 표준어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대개 그렇듯이, 언어정책을 국가의 다른 핵심 정책 못지않게 중요시해 왔다. 가능하면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쓰지 않고, 고유어를 바탕으로 하여 새 말을 만들어 쓰는 이른바 말다듬기 사업을 일찍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점이나, 북한 각 지역의 방언을 철저히 조사하여 방언 낱말들을 대거 문화어에 편입함으로써, 문화어가 북한 지역에서는 그래도 공통어적 성격을 띠도록 한 점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남한보다 자신들의 말에 더 뚜렷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바탕이 되는 기본 이념이 이른바 주체사상이라고 보면, 이러한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많은 노력을 들여, 주체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어를 ‘가꾸어’ 왔기 때문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은 당연하다.

문화어와 표준어의 통합 작업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선,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어려운 경우는 복수 규범어로 인정하여 모두 다 수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그런 다음에는 영구적인 복수 규범어로 존속시킬 경우와 단일화할 경우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영구적인 복수 규범어를 되도록이면 많이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복수 규범어 사이에도 미묘한 의미 분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어서, 다양한 의미 표현의 수단을 확보하는 결과가 된다.⁴⁰⁾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일화할 대상의 단일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단일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미래 지향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 ‘인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일 먼저, ‘내굴↔내/연기’, ‘내구럽다↔냅다’, ‘넉줄↔년출’, ‘망돌↔맏돌’ 등에서처럼, 문화어의 방언형 고유어와 표준어의 고유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어 낱말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경우의 문화어 낱말들은 대개 북부 지역의 각 지역방언 어휘에서 골라 넣은 것이다. 통일된 우리나라의 규범어는 한국어의 모든 지역 방언의 낱말들이 대거 편입된 공통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⁴¹⁾, 북한의 문화어에 지속적으로 편입

40) 표준어 단어와 문화어 단어가 모인 복수 규범어가 많아지면, 실제의 언어 사용 면에서는 상당한 고민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복수 표준어에서는 특정한 단어의 선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준어와 문화어 단어가 모인 경우에는 학교 교과서나 정부의 공식 문서,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제안해 온 바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복수의 단어를 병기하는 등으로 양측 단어 모두를 온 국민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41) 통일 후의 규범어가 공통어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사람들이 한 바 있다.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문정책을 표준어 중심에서 좀더 포괄적인 공통어 중심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을 수렴해 이를 정책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1일자). 여기서의 공통어란 표준어

되어 온 북한 각 지역의 방언 낱말들은 가능하면 영속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는 통일 후의 공통어적 성격의 규범어 제정을 위해 숙제를 미리 해 놓은 것과 같다. 이러한 낱말들과 우리 표준어 낱말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표준어 낱말과 이 낱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한시적인 복수 규범어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표준어 낱말을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남한 국민들의 인식 태도로 보면, 상당한 양의 표준어 낱말을 문화어 낱말로 대체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익숙해진 말을 버리고 별로 탐탁하지도 않은 ‘이상한’ 말이 규범어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불편함과 자존심의 손상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의 규범어를 제정하면, 자신의 방언형과 일치하지 않은 낱말들은 새롭게 습득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한 지역방언만으로 규범어를 제정한다면, 해당 지역방언 화자들과 나머지 전체 지역의 화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한국어가 한국어 각 방언의 총합이라면, 굳이 특정한 하나의 지역방언만으로 규범어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서울방언을 그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당시의 우리 여건상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힘들고 번거롭지만 통일된 우리나라의 규범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두루 편입된 공통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진지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설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불편함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우리도 그러한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유어로서 기타 지역 방언형

나 문화어를 아우르고 그 동안 배제되었던 각 지역방언과 생활 곳곳에서 쓰고 있는 말들에도 온전한 규범어로서의 자격을 주어 살려 쓰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개념이다.

과 표준어형의 대립일 때는 기타 지역 방언형을 채택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로, ‘밥꺅/꺅밥(←벤또)↔도시락’, ‘해돌이/해무늬(←연륜)↔나이테’ 등과 같이, 외국어나 한자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든 고유어형 낱말들 사이의 대립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채택하면 된다. 이들은 말다듬기나 국어순화운동에 의해 새롭게 만든 낱말들이어서 특정한 한쪽 어형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서로 반반씩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호상간↔상호간’과 같은 한자어 사이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모두 말다듬기 또는 국어순화운동이란 이름으로 어려운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대신할 고유어나 한자어 형식의 새로운 낱말을 만들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대신할 고유어 형식의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낱말이 공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유어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한자어를 그 다음 순으로 하여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복수 규범어로서의 병존 기간은 서로 상대방의 낱말을 인지할 때까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 전에 남북한의 방송 신문 각종 출판물 등이 개방되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남북한말 비교사전’⁴²⁾ 등을 만들어 쉽게 이용하게 하면, 복수 규범어로서의 병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각종 정부기관의 공문서나 학교 교과서 등에서 복수 규범어를 나란히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2) 관정이중환교육재단에서 편찬한 『남북통일말사전』(두산동아, 2006)은 좋은 시도이다. 이 사전은 남한과 북한에서 이질화된 어휘를 「남북말사전」과 「북남말사전」으로 구분하여 엮고(각각 5,000개씩의 어휘 수록) 뜻풀이 외에 상대방 측 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합동으로, 2012년 간행을 목표로, ‘남북 거래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 국어사용환경의 경우

남북한 간의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기본적인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어다. 외국어 특히 영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북한 쪽 주민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안겨 줄 것이다.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남한 사람들이 조성하고 있는 국어사용환경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제 잔재를 몰아낸 답시고 ‘벤또’를 ‘도시락’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벤또’라는 낱말은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주로 영어) 단어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우리 실생활의 일부였지만, 후자는 우월감과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 이름의 아파트보다 영어 또는 불어식 이름의 아파트가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인식된다. ‘네오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새마을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언어의식을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 있는데, 본고의 논의에 매우 유용한 부분이 있다. 다음은 일상적 대화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한 것인데,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총 4,055명의 응답자 중에 1,171명(28.9%)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국립국어원, 2005: 126). ‘능력이 있어 보여(353명)’나 ‘세련된 느낌이 들어(186명)’ 등은 열등감을 가진 경우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써서(630명)’는 부화뇌동 형이다. 그리고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1,617명)’는 우리말 공부 부족의 경

우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아직도 서구 문화에 대해 얼마나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외래어 외국어 사용 이유	능력이 있어 보여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세련된 느낌이 들어	주위 에서 많이 써서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기타	거의 사용 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353	1,171	186	630	1,617	38	19	41
	8.7%	28.9%	4.6%	15.5%	39.9%			

통계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특히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텔레비전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외국어 사용이다. 언어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시청자를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연예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의 외국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05: 131).

방송에서 외국어 사용 자제 우리말 사용 권장해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3.5%	16.6%	50.8%	29.0%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쪽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각종 출판물 등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무분별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아파트 이름과 잡지명 등과 같은 것,

그리고 방송에서의 무절제한 외국어 사용 등은 행정적 조치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외래어 또는 외국어의 사용은 말을 사용하는 언중들의 판단에 맡겨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매우+대체로 그렇다)는 19.7%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응답자(전혀+별로 그렇지 않다)는 2명에 1명꼴인 45.6%나 된다(국립국어원, 2005: 123).

외래어, 외국어 사용은 언중의 판단에 맡겨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7%	33.9%	34.6%	17.5%	2.2%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능하면 우리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품위 있는 언어생활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⁴³⁾ 무절제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V. 마무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말의

43)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주체 언어이론에서 주장하는 ‘언어생활의 올바른 기풍’ 관련 운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주체의 언어이론은 언어생활에서 올바른 기풍을 세우는 문제를 민족어의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양식 및 사업작풍의 개선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언어생활에서 올바른 기풍을 세우기 위한 원칙적 요구와 수행방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올바른 언어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원칙적 요구라고 하여, (a)알기 쉬운 말과 글을 쓸 데 대한 요구, (b)규범에 맞는 바른 말과 글을 쓸 데 대한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고영근(1989)에 있다.

이질화 정도와 그 통합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남한의 표준어는 분단 이전의 표준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의 문화어는 평양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라든지, 북한의 문화어가 탄생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과감한 변화를 피함으로써 남북한 말의 이질화가 시작되고 심화되었다든지, 그리고 복수 규범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언어 통합을 추진하고, 추후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관점을 펼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재검토하면서, 국토 통일 이후 남쪽 주민과 북쪽 주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주요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될 언어 관련 이질성들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규범어 사이의 이질화와 통합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문화어는 평양방언을 토대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분단 이전의 표준어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표준어나 북한의 문화어는 모두 분단 이전의 표준어를 계승한 것이며, 두 말 사이의 이질화는 분단 이후 각각 독자적으로 언어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셋째, 표준어와 문화어의 이질화는 거의 대부분 어휘적인 문제이다. 남북의 서로 다른 어형을 복수 규범어 방식으로 수용하고 추후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단일화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언중들의 선호도에 의해 단일화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표준어 어형으로 단일화될 것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 인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옳다.

넷째, 되도록이면 영구적인 복수 규범어를 많이 인정하되, 단일 화할 경우에도 복수 규범어로서의 병존 기간은 서로 상대방의 낱말을 인지할 때까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 시대의 규범어로서 이상적인 형태는 남북한의 각 방언들을 아우르는 공통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대전제의 바탕 위에서, 인위적 단일화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세부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어의 방언형 고유어와 표준어의 고유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어 낱말들을 채택해야 한다. [2] 외국어나 한자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든 고유어형 낱말들 사이의 대립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채택한다. 동일한 한자어 사이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해결한다.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낱말이 공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유어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한자어를 그 다음 순으로 하여 채택한다.

다섯째, 남북한 말의 이질화의 핵심적 내용은 어휘적 이질화인데, 이러한 규범어의 이질화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심각한 장애가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문화어와 표준어는 모두 분단 이전의,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고, 북한의 말다듬기나 남한의 국어순화운동의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같으며, 설사 그러한 결과로 새로 생긴 낱말이 생소하다 해도 양쪽의 주민들 대부분이 그 원래말도 아울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고빈도 어휘의 경우 양쪽이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여섯째, 국토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한의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이다. 국어사용환경이란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국어의 모습,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무분별한 외국어 사

용이 그것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다. 여성 잡지의 경우, 그 이름의 70% 가까이가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국어사용환경의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쪽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무분별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능하면 우리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품위 있는 언어생활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무절제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표준어, 문화어, 복수 표준어, 언어 통일, 의사소통, 외국어, 외래어, 공통어, 서울방언, 평양방언, 언어환경

참고문헌

1. 사전 및 자료

-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엮음(2006). 『남북통일말사전』. 두산동아출판사.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출판사.
국어사정위원회 편(1987). 『조선말 규범집』.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3).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8책. 탑출판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3).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9책. 탑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2. 논문 및 단행본

- 고영근(1988).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1)”. 『주 시경학보』, 제2집. pp. 47-84.
- 고영근(1988).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2)”. 『주 시경학보』, 제3집. pp.40-75.
- 곽충구(2001).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 국립국어연구원(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 국립국어연구원(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1: 남과 북이 서로 알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2003a).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 국립국어연구원(2003b). 『북한의 우리말 의미연구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2003c).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 국립국어원(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 국립국어원(2005).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 국립국어원(2005a). 『국어사용환경 조사(2005)』.
- 국립국어원(2005b).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5차 남북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민족어 어휘 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 국어국문학회 편(1990).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국어국문학토론, 4. 지식산업사.
- 국어연구소(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I, 고유어 편).
- 권재일(2006). “남북 언어 통합과 문법의 표준화.” 국제고려학회. 『화해와 협력시대의 코리아학: 제2회 세계코리아학대회 공동논문문집』. pp. 148-166.
- 김기석(2002). “남북한 국어순화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김민수 편(2002)』, pp. 55-100.
-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김민수(2002). “민족어의 통일문제.” 『김민수 편(2002)』, pp. 7-14.
- 김영배 편저(1992). 『남북한의 방언 연구: 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 김응모·최호철 편저(1999). 『통일 대비 남북한어 이해』. 세종출판사.
- 김정숙(1989). “남북한 어휘 비교”.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 박종갑 외(2007). 『북한의 언어와 문학』. 개정판. 영남대학교 출판부.
- 방혜숙(2002). “통일시대를 향한 남북한 언어 정책.” 『김민수 편(2002)』, pp. 15-32.
- 신현숙(1988). “로동신문을 통해서 본 북한의 언어 현상”. 『한글』200. 한글학회. pp. 253-301.
- 오미정(2002). “남북한 국어사전 편찬의 현황: 해방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김민수 편(2002)』, pp. 237-256.
- 전재호·홍사만(1984). “남북한의 어휘에 대한 형태론적·의미론적 비교 연구”. 『북한의 언어실태 연구』. 국토통일원.
- 조규설(1979). “북한의 ‘문화어’에 관한 연구: 그 언어정책의 추이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연구』8.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조오현 외(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채완(2004). “아파트 상표명의 구성과 조어.” 『한국어 의미학』14. 한국어 의미학회. pp. 1-29.
- 최호철(1989). “북한의 어휘 정리”. 도서출판 백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 홍종선(2002). “남북 표준어의 통일화.” 『김민수 편(2002)』, pp. 33-54.

On the Solutions for the Communication Obstacl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Park, Jong-Gap

The article examined 'heterogeneity related to speech' which will be main obstacles during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and presented solutions for that. The main suggestions in the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for reunification period, our concerns should not be confined only in the matter of 'heterogeneity and integration' between the standard language of South and North. The hindering factors against smooth commun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removed and that, furthermore, should be led to the matter of genuine national unity.

Secondly, lexical heterogeneity is the main fact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The heterogeneity seems not to be a big deal among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reunification. The reason is that both sides are using same lexical items as in the case of highly frequent everyday speech, though hav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chnical terms.

Thirdly, natural unifying methods are not reasonable in terms of preference of language users, after adopting dual standard notation methods as in word forms showing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tandard languages. The standard language in the era of reunification should have the characters of a common language including various dialects of each other. The simplification of dual standard lexical items should be promoted coinciding with such characters.

Fourthly, south Koreans' inconsiderate use of foreign languages can be a serious obstacle for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fter reunification. Of all importance is that we have to try to improve cultural aspects related to our language for us to recognize that using our own

language is more decent language life. More strong measures on the reckless using of foreign languages can be a firm basis for achieving these goals

Key words : standard south korean, standard north korean, a plural standard word, language unification, communication, a foreign word, an loan word, a common language, Seoul dialect, Pyungyang diale3)810-2115

전자우편: ckpak@ynu.ac.kr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